창신교회, 원로 · 명예목사 초청 위로예배 드려

원로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 정성으로 섬겨

창신교회(석진성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원로 · 명예목사회 회원들을 초청해 위로예배를 드리고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원로 · 명예 목회자들을 섬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위로회는 개별 교회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원로목사들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창신교회가 결단하고 원로목사를 존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창신교회와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예배는 회장 이윤구 원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유흥옥 원로목사의 기도, 총무 윤종관 원로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원로목사 사모들로 구성된 예은찬양단의 특별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이어 창신교회 이종복 원로목사는 '노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온전히 기억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길벗 삼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총회장 이종만 목사의 사모가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은혜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의 평화와 발전 민족복음화를 위해, 예성총회와 산하기관의 부흥을 위해, 창신교회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의 봉헌기도와 송덕준 원로목사의 광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참석한 150여 명의 회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눈물로 목양해 온 원로 및 명예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위로회를 준비한 창신교회 담임 석진성 목사는 "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원로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배를 마친 회원들은 창신교회가 마련한 정성 어린 식사를 통해 동역자들과 교제를 나눴다.

셔틀콕으로 전하는 성결의 복음

제2회 총회장배 목회자 배드민턴 대회

제2회 총회장배 목회자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6월 23일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진행됐다. 총회가 주최하고, 예성 배드민턴동호회(회장 김원태 목사)의 주관 하에 예성 스포츠선교단(단장 이상문 목사)이 협찬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선수로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겨루었다.

경기에 앞서 양승용 목사(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는 박종렬 목사(경기이사)의 기도가 있은 후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법이요'(딤후 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부총회장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인과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질서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원태 목사도 환영사를 통해 "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대회가 건강한 교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는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가자 모두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그리고 군산시 배드민턴협회장 김창식 집사(하늘빛교회), 군산시 테니스협회장 임경철 목사(회복교회)가 군산에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함께 격려했다. 예배를 마친 뒤 총 4개 조로 나누어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우승자에게는 가방(PJB), 준우승자에게 배드민턴 라켓(PJB), 3위는 배드민턴 라켓(Ryder)이 시상됐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단체 티가 제공되었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전달되었다.

한편, 선수 외에 목회자 사모들도 함께 참석하여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활기찬 응원이 이어졌다. 이번 제2회 총회장배 목회자 배드민턴대회는 목회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예성 목회자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하나 되어 교제하며, 연합을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다음은 이날 수상자 명단

▲ A조 우승: 우수동 목사(가평남부교회), 준우승 권상호 목사(꿈이있는교회), 3위 박종렬 목사(시냇가에심은교회)

▲ B조 우승: 윤덕남 목사(참길교회), 준우승 김혁 목사(한순교회), 3위 김석형 목사(자연교회)

▲ C조 우승: 강명복 목사(주영광교회), 준우승 손기선 목사(미당교회), 3위 정부기 목사(예미향교회)

▲ D조 우승: 박현재 목사(경기남, 대덕교회), 준우승 최정규 목사(경북, 무성교회), 3위 박철수 목사(새날교회).

김희신 원로목사 한숲문학상 수상

경기동지방회 상문교회 김희신 원로목사(사진)가 한국문단을 빛내고 기독교 문화창달을 위해 힘쓴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아 제3회 한숲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 홀에서 열렸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문학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희신 목사는 일찍이 '크리스천문학'과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양평가는 길' '격포항에서' '꽃산이야기' '남한강' 등 여러 권의 시집과 칼럼집을 출판한 바 있다.

이번 수상과 함께 발표된 작품 '봄비', '여름', '만추' 등 3편의 시는 '쉴만한 물가' 제12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젊은 그들, 다음세대 여름사역 준비 한창

다양한 행사 마련 무더위 속 신앙생활 담금질

늦장마와 함께 시작된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산하기관들의 여름행사가 한창 준비 중이다. 서삼교회(전영호 목사)는 해마다 연합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고 있는 드림캠프는 8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물론, 캠프 기간 모든 경비를 서삼교회가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넥스트 드림 캠프(Next Dream Camp)도 동기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총회 학생부도 청소년전국연합수련회를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청소년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함께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연합수련회의 주제는 'Re: Born'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 일산증가교회 최현 목사, 로이디자인 최창수 목사, ETM선교회 대표 서종현 목사 등이 주강사로 나서서 다음세대를 위한 도전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1천 200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성청연합수련회도 준비가 한창이다. 총회와 청년회전국연합회, 청년사역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성청연합수련회는 오는 8월 15일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주강사로는 남빈, 홍정수, 이종화 목사가 참여한다.

성결대 학술정보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온 · 오프라인 연계 교육체계 구축… 문헌정보 전문인재 양성

성결대학교학술정보관은 지난 달 17일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과 문헌정보학 오프라인 실습 및 특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인프라의 사회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온라인 이론 교육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의 현장 실습을 연계한 온 · 오프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문헌정보 전문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실제 장서와 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이론 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실무 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높여 자격 취득 지원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임은미 관장과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허인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평생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와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모집 "뜨거운 찬양 · 기도로 교단 영성 깨운다"

이상문 부총회장 목사 후원,

'목회자 · 사모 찬양팀' 싱어 및 연주자 모집

교단 영적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한 '목회자 · 사모 찬양팀'이 신설된다.

이번 찬양팀 구성은 최근 이상문 부총회장 목사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 약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교단 내 찬양과 악기 은사자들을 발굴해 다가오는 하계수련회와 내년 동계수련회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찬양팀의 주요 목적은 수련회 기간 동안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를 주도함으로써 교단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우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교단을 사랑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와 사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다린다.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 모집 요강

ㄱ 목적: 하계 및 동계 수련회 시 교단 영적 부흥을 위한 찬양 인도 및 기도회인도

ㄱ 지원 자격: 교단 소속 목회자 및 사모 (찬양 및 악기 은사자, 주변 추천 가능)

ㄱ 모집 부문

• 찬양 인도: 1명 • 싱어: 남성 4명, 여성 4명 (총 8명)

• 건반: 2명 (메인 1명, 세컨 1명) • 기타: 일렉기타 1명, 어쿠스틱기타 1명

• 베이스 기타: 1명 • 드럼: 1명 • 그 외 악기: 바이올린 등 관현악기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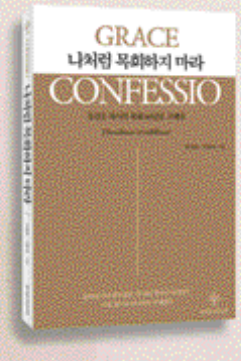
■ 문의 및 접수

• 새에덴교회 김영국 목사 (☎ 010-5516-0091)

"찬양과 악기의 은사를 통해 교단의 예배를 깨우고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될 목회자, 사모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4년 목회 여정, 유선호 목사의 목회 고백록

나처럼 목회하지 마라



유선호·이상욱 지음 | 304쪽 | 17,000원

모든 신앙인들이 각자 달팽에 해당하듯 직접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후배 목회자와 다음 세대에게 간접경험이 되도록 신앙유산으로 남깁니다.

Contents

1부 | 모방과 소명의 형성 · 미메시스
1. 나를 빚으신 땅과 사람들
2. 나의 눈을 열어준 신앙의 모델들
3.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자의 꿈
4. 말씀과 훈련이 나를 주조하다

2부 | 목회 여정의 플롯 · 메토스
5. 카다콤교회, 첫 목회지의 서막
6. 평강교회, 그 시작의 이야기
7. 시련이 이야기의 축을 바꾸다
8. 성장의 절정과 영적 전환점들
9. 목회 44년의 클라이맥스

3부 | 인격과 성품의 고백 · 에토스
10. 목회자의 경제 윤리
11. 기도하는 인간
12. 양을 알고 이름을 부르다
13. 가정과 목회 사이
14. 성품으로 돌아보는 나의 삶

4부 | 정화와 해방의 순간들 · 카타르시스
15. 성령의 인침과 소년의 도상
16. 인간의 한계 앞에 무너지다
17.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던 밤
18. 정화된 목회자로 새롭게 서다
19. 영원한 안식, 그 완성을 향한 송가

5부 | 신학적 사유와 메시지 · 디아노이아
20. 나의 성경관과 설교 철학
21. 평강(平康)의 신학
22. 교회론과 공동체 이해
23.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신앙 명제들

6부 | 비전과 유산의 스페타클 · 옵시스
24. 평강교회, 지금 여기에 서 있다
25. 제자들과 동역자들의 이야기
26. 수직적 설교
27. 후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한국문서선교회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